

광주시, 민선 8기 기관장 인사 관심

산하·유관 기관장 잇단 공모 환경공단 등 8곳 인선 돌입

광주시 산하·유관 기관장의 임기 만료가 이어지면서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인사라는 점에서, 공개모집 과정 등을 통한 인사 경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이사장 후보를 공모한 출신 1명, 기업 출신 1명 등 2명으로 압축해 오는 29일 면접을 시행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고득점순으로 추천한 복수 후보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의 최종 1명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적격후보가 없을 경우엔 지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보자로 최종 선정되면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시장으로부터 임명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시립미술관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각각 이사장, 대표이사, 관장 공모 지원서를 접수한다.

신용보증재단은 공고문에서 병역기피, 탈세,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임용 전 7대 원천 배제 기준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김미경 대표이사가 대학강단에 복귀 등을 이유로 임기 만료(10월 14일)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대표 선임 절차를 앞당기게 됐다.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시립미술관 관장 공모에도 지역 미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2018년 관장 모집 당시 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11월 15일, 10일 임기가 각각 만료되는 광주테크노파크와 한국광기술원 원장, 전임자 퇴임으로 공석인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도 후

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4명, 광주시 추천 4명 등 8명으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테크노파크 원장은 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이사회 최종 후보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한국광기술원도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광기술원 이사회 3명씩 모두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조만간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도 원장을 공모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공공기관 대표 인선과 관련, "유능함과 무능함,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적재적소가 중요하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법이 정한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전선 순천 도심 관통 반대” 순천시민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경전선의 순천 도심 관통 반대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재생사업, ‘선택과 집중’ 통해 전략적 계획 수립해야”

광주전남연구원 ‘정책 브리프’ 주장

완성도 높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사업을 확산하는 등 전략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을 꼼꼼히 파악해 쇠락하고 있는 구도심지역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2일 “2022년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광주전남 정책브리프’에서 기존 노후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정비 중심에서 나아가 지역산업 특화·강화 기능을 수행할 거점공간 조성 및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전략적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지원과 쇠퇴한 원도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지구 조성 및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광행구·최우람·이진희의 연구진은 “새정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 핵심 키워드는 ‘단순화’와 ‘실질적인 사업’”으로 분석했고, “지역 고유자산을 연계한 특화산업재생 거점의 경제거점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성과연동형 예산체계 도입에 따라 기존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국토부 및 지원기구의 사전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처 간 연계사업 발굴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화 방안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자체기능을 강화하고 경제거점 기능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광행구 선임연구원은 “기존 ‘생활SOC 공급과 운영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그 지역만이 가진 특별한 스토리에 기반한 ‘실질적이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산업의 발굴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A부터 Z까지의 높은 완성도, 평가항목 및 기준을 갖춰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협상 부실 질타

임미란 광주시의원



지난달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합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광주시의 부실한 협상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남구2·사진)의원은 22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나주시의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 출연은 광주시가 요구한 120억원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에서 나온 80억원 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기금을 광주·전남·나주가 나누어 갖는 것인데, 혁신도시 절반의 몫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 매우 불리하고, 부실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나주시는 혁신도시 유치에 의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고 ‘70%를 공동 발전기금

으로 조성’하고 ‘30%를 이전 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협약한 뒤 혁신도시를 유지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공동혁신도시 건설 성과를 광주와 전남 전역에 고루 파급되어야만 공동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에 협약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전남도와 나주시에 지속적으로 공동기금 조성을 요구했으나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난 해까지 총 1133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나주시 1033억, 전남 100억을 확보하는 동안 광주시는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 예산편성·효율적 집행 필요”

정다는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는(북구2·사진) 의원은 22일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민원성 사업, 무리한 공사사업과 같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빚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의 이날 발언은 올해 1차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7362억원 가운데 488억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방채 488억 원이라는 돈은 광주시가 본예산에서 예정한 지방채의 22.7%에 달하는 큰 돈이고, 그 빚을 갚을 사람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자녀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안으로 집행하지 못할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후일

로 미뤄 광주가 빚을 덜 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22일부터 열흘 동안 광주시 7362억원, 시교육청 625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에 발행될 지방채 대부분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민간공원 사업 등에 투입될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추경 제안설명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려운 민생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광주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뭔지를 고민한 끝에 필수·약속·씨앗예산으로 나눠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10월 ‘버스커즈 월드컵’

민선 8기 활력 넘치는 도시를 시장 목표로 제시한 광주시가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치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광주관광재단, 광주 문화재단 등과 함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들은 고유 관광 콘텐츠·기반 확충,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의 관광 명소화, 관광자원 스토

리텔링 등에 중점을 두고 관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와 동구는 오는 10월 지역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 콘텐츠로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인(in) 광주’ 행사를 함께 열기로 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시 모든 부서와 유관 기관이 관광 마인드를 갖추고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관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